

5·18 짓밟은 보수집회...“민주성지 모독” 광주시민들 분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민주화의 성지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5·18 왜곡·편향을 자행해 “우리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집회 연사로 나선 이들이 잇따라 “5·18을 부정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음에도 정작 현장의 집회 참가자들은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특히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학살당한 현장인 금남로 한복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광주를 모독했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5·18 부정한 집회 참가자들=보수 계열 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지난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금남로공원 인근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입구에 자리를 잡은 보수 성향의 집회 참가자들은 5·18사적지 표시석을 밟고 서서 표시석 사이에 쓰레기를 끼워넣고, 표시석과 인근 화단에 침을 뱉기도 했다.

집회가 끝난 이후 표시석 인근에 조성된 화단은 온통 짓밟혀 있었고, 표시석 바로 앞 화단 난간에는 ‘Stop the steal’ 스티커가 붙어 있어 잘 때어지지도 않았다.

집회 현장에서는 한 언론사에서 제작한 5·18 왜곡·편향 인쇄물이 버젓이 배포되고 있었다.

이 인쇄물에는 첫 장부터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 하에 1980년 광주 시민을 내란범이라고 폄하하는 글이 실려 있었다. 또한 5·18 가짜 유공자설, 북한군 투입설 등 5·18을 왜곡·편향하는 내용이 40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다.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가 해당 인쇄물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으며, 금남로공원 등 벤치에 앉아 인쇄물을 펼쳐 들고 탐독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는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내용의 기사를 써 수차례 5·18기념제단에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집회 도중 금남로공원, 금남로4가역 교차로 등 두 곳에는 ‘북한군 개입설’, ‘가짜유공자설’ 등을 내세워 5·18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권영해(전) 안기부장, ‘5·18에 북한

찬탄·반탄 집회 열린 주말 금남로

5·18표지석 밟고 왜곡·편향까지 ‘북한 개입 사실’ 현수막도 버젓이 “민주성지에서 계엄옹호라니” 비난 역사강사 전한길-황현필 설전도

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주최측인 세이브코리아에서 내건 현수막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또 현수막 하단에는 ‘자유민주당이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훼손 및 철거 시 정당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써 놓기도 했다.

5·18 관계자들은 “보수 단체들이 황당하고 기만적인 집회로 5·18을 욕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계엄으로 피해를 입었던 곳에 와서 광주시민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회를 연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며 “말로는 5·18을 존중한다면서 정작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5·18을 존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5·18 광주를 점령했다는 마음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45년 전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한 금남로에 와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여는 것도 모자라 버젓이 5·18 왜곡과 편향을 자행하고, ‘광주 빨갱이 나와라’, ‘죽어, 죽어’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광주를 모독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실 정치인을 살리겠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5·18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길 vs 황현필 강사 맞붙음= 금남로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서 역사강사들이 출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간 40여분 동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

을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 12·3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저는 처음에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윤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깨달았다”면서 “국민에게 이런 민주주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선포 6시간 만에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없어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행사였다”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무대에는 역사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소장이 올랐다.

황씨는 “내란수괴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대표 도시 광주에서 집회를 열었다”면서 “얼마든지 자유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내란수괴 옹호 집회를 하는 건 홀로코스트 나치추종자가 집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탄핵반대 집회참가자들을 비판했다.

1980년 5월 8살로 광주시 서구 능성동에서 살았다는 황씨는 “어른들이 총알을 막으려고 창문에 망치질한 모습이 기억에 있다”며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오자 따라다니며 ‘군인 아저씨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때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도 떠오른다”고 말했다.

황씨는 “극우는 순혈주의, 자국 우선주의인데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전두환을 추종하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극우에도 끼지 못한다”면서 “부인 특검을 막자고 비상계엄한 사람은 윤석열이 처음이고 2시간 만에 해제된 점도 역사상 최초”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호남 의병, 1980년 광주시민 피로 인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했다”고 말했다.

전두환을 광주 법정에 세웠던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도 이날 “우리 광주가 45년 전 전두환의 만행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내란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민주성지 광주 금남로에 더러운 발을 딛고 서 있느냐. 썩 물러가라”고 호통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5·18 사적지 표시석을 밟고 표시석에 쓰레기를 끼워넣으며 집회를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 5·18을 왜곡·편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 오염 속 합동위령제 엄수

유가족들 “너무 보고 싶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를 맞아 179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엄수됐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정부·지자체 관계자, 국회의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애도 묵념으로 시작해 헌화·분향, 추모사 낭독, 종교별 49재 합동위령제, 진도 씻김굿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이날 진행된 위령제는 대체로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 속에

서 진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울적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위령제에 앞서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가족들은 가족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하다가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 60대 여성은 딸의 영정사진을 향해 “언니들이 꽃을 사왔어. 너무 보고 싶다 내 딸아!”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멍한 표정으로 추모사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화면에 희생자들의 생전 사진이 차례차례 띄워지자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다. 가족들은 ‘보고싶다’, ‘어떻게 사느냐며 흐느꼈고, 황제어에 앉은 90대

노모 역시 “아이고, 아이고” 탄식하며 연신 자식의 이름을 불렀다.

종교별 위령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진행됐다. 최용희 서림교회 목사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나오겠다던 한 청년이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어머니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돼 남을 돕는 삶을 살겠다던 착한 청년이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건강을 되찾은 기쁨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이도 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조계종의 지공 스님과 민세영 시몬 신부 역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기원했다.

유가족들은 함께 두 손을 모아 기도문이나 반야심경 등을 외우며 떠나간 가족들의 명복을 빌었다.

박한신 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49일이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분노는 선명하다. 12월 29일 이후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아직도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우리는 이 슬픔을 분노와 다짐으로 바꿔 같은 고통을 그 누구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위령제가 끝난 후 오후부터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진도씻김굿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는 유가족간 인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안=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부산 호텔 공사장 불 6명 사망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16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의 경상을 입었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재 신고자로부터 B동 1층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T룸’은 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공간이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